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3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수원FC
4월 7일 (일) 14:00



Next Home Match
광주 vs 고양 4월 20일 (토) 14:00



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igam0

Photo Gallery

2013/03/31 (일) 14:00 안양전



첫 승 광주, 서포터즈에 달려간 이유



홈 2연패 속 팬들 볼 낫 잃어... 먼발치서 목례만
주장 박병주 경기 뒤 '단체사진' 제안 기쁨 만끽

광주FC가 시즌 첫 원정경기에서 첫 득점포를 가동하며 첫 승을 올렸다. 선수단은 득점에 성공하자 곧바로 서포터즈석으로 달려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경기 종료 후에는 단체사진을 찍으며 돈독한 우정도 과시했다. 보통 원정팀의 경우 골을 넣거나 승리했을 경우 가벼운 세레머니를 펼치는 것이 축구계의 암묵적인 룰. 광주 선수단이 서포터즈에 달려간 사연은 이렇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3월16일 홈 개막전 상주상무를 상대로 3:0으로 패배했다. 상주의 경우 국가대표 이근호를 비롯해 하태균, 김동찬, 등 화려한 전력을 갖췄다지만 지난 2시즌 동안 단 한번도 패한 적이 없었기에 충격이 컸다. 특히 그동안 강팀을 상대로도 물고 물리는 치열한 승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데다 올 시즌 우승후보로 거론되며 처음 치른 홈 개막전이었기에 팬들의 상실감은 배가 됐다. 얌전한 데 댈친 격으로 홈 2라운드에서는 충주를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실점하며 완벽하게 자존심을 구겼다. 팬들 볼 낫을 잃은 선수단은 먼발치에서 목례만 하고 락커룸으로 사라졌다. 두 경기 연속 패한 선수단의 입장도 심본 이해는 되지만, 아무조건 없이 2시간 동안 광주를 응원한 팬들은 섭섭함과 비할 수 없었다. 내심 신경이 쓰였던 주장 박병주는 경기가 끝난 뒤 서포터즈에게 연패에 대한 미안함과 경기종료 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을 것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광주는 시즌 첫 원정길인 안양에서 사력을 다한 끝에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고, 멀리서 응원한 팬들은 섭섭함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 주장 박병주는 "지난 홈 2연패로 인해 팬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차마 얼굴을 들고 인사를 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모두 전력의 큰 차이가 없다. 승격을 위해 매경기 최선을 다하고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2013 K리그 챌린지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날 경기에서 광주 팬들에게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선물할 계획이다.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07(일)	14:00	광주	수원FC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청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청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청

Sponsor	행복한농촌도시광주	KJB 광주은행
Joma	우미건설	조선대학교병원
GS&POINT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그레미	롯데시네마 수원·광주
ALASKA 광주월드컵점	바은안과21	III BROS 청연의료재단
SFB 사립방송 신문	TS 교통안전공단	고령지리산산상
모아레포츠타운(주)	광주수원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CAPO 카포스포츠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광남일보
수원·안양·충주·부천·경주·대구·부산·서울·인천·대전·광주·전주·제주	대지칼리·남연·전용팀	보통·남연·전용팀
월드	수원·안양·충주·부천·경주·대구·부산·서울·인천·대전·광주·전주·제주	무진주

Review

경기력과 득점력의 조화로 거둔 시즌 첫 승!



"바로 이것이 광주다운 축구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안양의 안방에서 광주는 전반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높은 지역에서부터의 강한 프레싱을 바탕으로 짧고 정교한 패스와 선수들 간 유기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안양의 문전을 맹목한 것. 여범규 감독이 겨우내 주문했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축구가 이제야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고무적인 건 지난 상주전, 충주전에서 터질 듯 터지지 않던 득점포가 마침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패하기는 했지만 앞선 두 경기 모두 상대와 대등 혹은 더 많은 골 찬스를 만들었던 광주다. 아쉽게도 그 중 단 하나를 살리지 못했고 이 날 안양전에서도 후반 초반까지 골을 성공시키지 못해 불안한 기운이 감돌던 찰나, 천금같은 PK를 루시오가 성공시키고 곧바로 안동혁이 추가득점하며 단숨에 골 가뭄을 해갈시켰다.

덧붙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는 선수단 전체의 강한 정신적 무장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안양전 승리의 이유들 중 하나다. 시즌 개막 직전까지 K리그 챌린지 내 강력한 우승후보들 중 하나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첫 두 경기에서 연패하자 일부 언론과 팬들이 광주의 전력을 폄하하는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자극 받은 선수들은 안양전을 앞두고 팀 분위기를 다잡았고 그런 노력은 실전에서 상대보다 한 발 더 뛰는 활동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광주는 팀 경기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서 홈팀 안양을 압도하며 고대하던 시즌 첫 승을 올렸고 향후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뛰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Preview

광주, 2연승으로 순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찰청이 2연승으로 선두에 나섰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첫 경기에서 광주에 패배의 아픔을 안겼던 상주는 이후 2연속 무승부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는 안양을 제물로 승점 3점을 획득하며 단숨에 최하위에서 5위로 도약했다. 선두권과는 많아야 고작 한 경기의 승점 차이.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주말 홈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광주FC가 오는 4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수원FC를 상대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3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안양전 승리로 분위기를 쇄신한 광주는 내친 김에 수원까지 잡고 상승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팬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계획.

팀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일단 두 경기 동안 침묵하던 공격진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지금 루시오의 몸 상태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득점을 해 줄 거란 기대감을 갖게 하기 충분하고 겨우내 폼이 가장 좋았던 토종 공격수 안동혁도 시즌 마수걸이로 골로 자신감을 찾았다. 지난 경기에서 홈팀 안양이 제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광주 미드필드진의 가공할 압박능력 역시 수원전 승리에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매 경기 실점하고 있는 수비라인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3라운드 동안 광주가 기록한 5실점 가운데 3실점 정도는 수비수들 간 호흡과 볼 처리 집중력이 좀 더 높았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주말 수원전을 앞두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력 향상에 무계를 두어야 한다.

수원FC – 뒷심이 무서운 리그의 '복병'



수원FC는 지난해까지 내셔널리그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실업축구 전통의 명문이다. 하지만 리그 내 타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프로로 전환했기에 선수 수급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때문에 알찬 동계훈련을 할 수 없었던 수원의 올 시즌 초반 경기력이 다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 그럼에도 수원을 결코 알잡아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연 '무서운 뒷심'이다. 첫 경기 부천전에서 역전패 당한 후 원정 2연전으로 치른 상주전, 고양전 모두 선취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중반 이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끝내 동점을 만들었다. 특히, 장신 보그단의 압도적인 제공권에 김한원, 박종찬 같은 경험 풍부한 공격수들의 빠른 몸놀림과 반 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이 돋보인다.

반면 아직까지 기존의 미드필더들과 새로 영입한 보그단 간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완전히 않은 부분은 조력제 감독의 고민거리. 하지만 지난 세 경기를 통해 나타났듯 효과적인 선수교체 및 배치로 경기 흐름을 단번에 뒤바꾸는 조 감독의 용병술이 후반전 중반 이후 광주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는 수원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젠 '보그단'이 되어 적으로 만난 '복이'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수원FC의 최근 두 경기 연이은 후반전 드라마에 '주연급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고양전에선 팀 시정상 총알수비로 뛰었음에도 특유의 피지컬을 십분 활용하며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자질까지 드러냈다. 바로 지난 시즌까지 '복이'란 이름으로 광주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보그단에게에 광주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Focus

루시오 “빠르게 부활 중인 브라질산 폭격기”



첫 두 경기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되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한 몸놀림으로 주변의 기대를 받았던 루시오가 드디어 자신의 올 시즌 첫 선발출장이었던 제3라운드 안양전에서 PK로 천금 같은 선취골이자 팀의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득점보다 더 고무적인 건 특유의 묵직한 슈팅은 물론 볼 컨트롤과 드리블, 헤딩 등 경남 시절 보여줬던 그 다재다능함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브라질 출신 공격수 카시오가 거칠고 빠른 한국무대에 아직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미 K리그 경험을 갖추고 있는 루시오의 부활은 광주에겐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 진영 어느 곳에서도 볼을 지켜내면서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유형의 선수이기에 주변의 안동혁, 임선영, 김은선, 박현, 김호남 등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올 해 처음 출범하는 K리그 챌린지이기에 외국인 공격수에 대한 각 팀들의 수요나 비중이 K리그 클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상이다. 하지만 클래식, 챌린지 가릴 것 없이 팀이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 외국인 공격수의 맹활약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루시오의 빠른 컨디션 회복과 가공할 득점포의 가동은 광주의 앞날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